

책이 있는 '팟 캐스트' 뜬다

최근 위즈덤하우스가 펴낸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에는 '그리스인 조르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 모두 7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소설가 김 중혁이 진행하는 팟 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에서 다 뤘던 작품들이다.

팬들 사이에서 '빨책'으로 불리는 '이동진의 빨간 책방' 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친절한 '독서 길라잡이' 역할 을 했다. 출간된 지 10년이 넘은 이언 맥큐언의 '속죄'가 다 시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도 '빨책'의 힘이었다.

도서 관련 팟 캐스트가 인기다. 팟캐스트(Podcast)는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뜻하는 브로드캐스트 (broadcast)의 캐스트(cast)를 합친 단어다. 스마트폰이 나 pc로 듣는 라디오 방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서 비스가 시작됐고, 2011년 '나는 꼼수다'가 팟캐스트 열풍 을 몰고 왔다.

팟 캐스트 순위를 발표하는 '팟빵'에 따르면 여전히 상 위권은 정치·사회 관련 프로가 점령하고 있지만 도서·출 판 관련 사이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 관련 팟캐스트 운영에는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즈덤하우스가 운영하는 '빨책'은 출판 사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됐다. 지난 2012년 5월 1일 첫방 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 100회를 넘어섰으며 매주 수 요일 업데이트된다. 팟빵 순위 도서관련 분야 1위를 놓치 지 않는 '빨책'은 매회 15만건 이상 다운로드 된다. 이미 영화 평론 분야에서 탄탄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동진과 소설가 김중혁의 호흡이 잘 맞는다. 지난 8월부터는 책 관 련 글을 쓰고 있는 이다혜 씨네21 기자가 함께 진행하고

창비는 출판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비는 지난 2013년 '창비라디오-라디오 책다방'을 오픈했다. '욕망해도 괜찮아'의 김두식 경북대 법학과 교 수와 소설가 황정은이 진행하는 '책다방'에서는 다양한 주 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해 4월에는 '창비 라디오-진중권의 문화다방'을 열 었다. 입담 좋은 진중권이 문화계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첫회 손님 가수 윤종신을 비롯해 건축가 승 효상, 영화 평론가 정성일 기타리스트 이병우, 화가 임옥 상, 사진작가 구본창 등이 다녀갔다. 지난해 말에는 가수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책수다·낭만서점·문화다방 출판사 서점 등 앞다퉈 방송 '빨간 책방' 15만건 내려받아 "숨겨진 책 소개 청취자 호응"



■ 도서·출판 관련 팟캐스트 순위

순위	이름
1	이동진의 빨간 책방
2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3	소소한 책 수다
4	창비라디오,진중권의 문화다방
5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6	창비라디오, 라디오 책다방 (김두식 진행)
7	문학동네 채널1,문학이야기 (권희철 진행)
8	책, 즐겁게 듣자!!
9	창비라디오, 김사인의 시시(詩詩)한 다방
10	착한 낭독, 독한 일상
11	비즈니스 영어
12	교보문고 낭만서점 (정이현 진행)
13	쭈니 삼촌과 쭈니 이모의 동화책 여행
14	미생 라디오
15	뼈가 있는 책
16	꿈타장의 유혹하는 책읽기
17	뫼비우스의 띠지
18	중국어 초보자들을 위한 무료강의
19	교보문고 라이크 역사
20	어느 별에서 왔니
	/#HUU

〈팟빵 제공〉

신해철 추모방송도 진행됐다.

지난 12월부터는 '창비라디오-김사인의 시시(詩詩)한 다방'도 시작했다.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업로드되는 '시시한 다방'은 초대 시인과 시와 삶, 사회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고 시인의 육성 낭송을 듣는 '시시콜콜', 김사인 시 인이 직접 고른 시를 낭독하고 감상을 들려주는 '가만히 좋아하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푸른봄 출판사가 운영하는 '소소한 책수다'는 곽명동· 정강현 두 기자가 진행하는 팟 캐스트로 책과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남자의 책', '영화가 책을 만날 때', '시와 음악 사이'로 구성돼 있다.

또 문학동네가 진행하는 '문학동네 채널1: 문학이야기' 는 신형철 조선대 교수에 이어 문학평론가 권희철씨가 바 톤을 이어 받았다. 그밖에 휴머니스트가 진행하는 '박시백 의 조선왕조실록', 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한 푸른책들의 '푸른 책방 BOOK'도 눈길을 끈다.

대형 서점 교보문고도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시작한 교보문고 북TV의 '정이현의 낭만서점'은 '달콤한 나의 도시' 등을 쓴 소설가 정이현과 문학 평론가 허희씨가 함께 진행한다. 1부에서는 낭만서점이 뽑은 책 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게스트를 초청한다.

도서 관련 팟캐스트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시초 로 꼽는다. 지난 2010년부터 김씨가 직접 낭독과 해설을 맡아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0여 권의 책을 소개했다.

'빨책'을 운영하는 위즈덤하우스의 김은주씨는 "초창기 팟캐스트가 정치·사회분야 중심이라 모델이 없어 힘들었 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같다"며 "평론가 시절부터 인정받아온 이동진씨에 대한 신뢰가 워낙 크고 김중혁, 이다혜씨와의 호흡이 잘 맞는 것도 인기 요인인듯 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신간, 베스트셀러를 떠나 숨겨진 책들을 함 께 읽고 문학·비문학을 적절히 선정, 청취자들의 선택 폭 을 넓히며 다양한 취향의 책을 소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며 "대화가 가볍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머를 곁들이면 서도 책 하나하나 깊고, 넓게 짚고 넘어가는 진행자들의 노 력과 준비과정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성 대원사 극 락전 '관음보살'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등

전남 사찰 3곳 벽화・불상 보물 지정된다

보성 대원사 극락전 등 전남 지역 사 찰 3곳의 벽화와 불상이 보물로 지정된 다.

문화재청은 5일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해남 대흥사 '석가여 래삼불좌상'(釋迦如來三佛坐像) 등 전 국 에 있는 문화재 17건을 국가지정문 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 대사 벽화'는 불전 내부 동·서 벽면에 관음보살도와 달마도를 배치한 독특한 사례로 운문사 관음보살·달마대사 벽 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다. 특히 18세 기 중·후반 크게 활약했던 의겸파 화풍 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는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첩부 벽화라는 점이 특징이다. 첩부벽화는 보통 천장의 장엄화나 대량의 별화에

사용되는 벽화로, 후불벽 전면에 예불 화로 그려진 것은 이 벽화가 유일하다.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전란 과정에서 의승군의 최고지도자로 활약했던 서산대사의 의발(衣鉢, 승려 의 가사와 바리때)이 1606년에 대흥사 에 봉안되고, 6년 뒤에 제작된 불상이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 한 유물 17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 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 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靑銅菩薩坐像)과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釋迦如 來三佛坐像)을 보물 제1841호와 제1843 호로 지정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조현영과 함께 하는 피아노 토크

10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이 '피아니스 트 조현영과 함께 하는 피아노 토크-사 람과 사랑'을 진행한다. 10일 오후 2 시~4시 교육원 대건문화관.

1부는 영상과 함께하는 클래식의 이해 로 클래식의 의미, 클래식의 시대별 특징, 대표 작곡가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꾸 며진다.

2부는 연주와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 회다. 레퍼토리는 파헬벨의 '캐논 변주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 리아와 30번 변주', 모차르트의 '아 어 머니께 말씀 드리죠' 의 주제에 의한 12 개 변주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폭풍', 쇼팽의 '이별곡' 등이다.

전남대 예술대, 독일 쾰른 음대를 거



쳐 라히프치히 국립음대에서 박사과정 을 마친 조씨는 16차례 독주회를 진행 했으며 전남대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예술 강의 기획 'Art & Soul' 대표를 맡 고 있으며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출강 중이다. 참가비 1만원(학생 5000원). $062-380-2210 \sim 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 5 ☎ 062)267-8580



